

‘요즘 육아’ 정형돈, 여섯 살 딸 주제로 진한 감동 선사

KBS 공채 17기 개그맨으로 방송가에 발을 디딘 정형돈은 부산전자공고를 졸업하고 인덕대 방송연예학과를 졸업했다.

고교 시절 교내 연극부 대표를 맡아 무대 경험을 조금씩 쌓았으나 졸업 후 삼성전자에 입사하면서 연극과 거리를 뒀다. 삼성전자에서 생산직으로 일하면서 ‘이 일은 내가 원하는 진정한 꿈이 아니다’는 생각에 2001년 퇴사했다.

정형돈은 한 특강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퇴사가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즐거웠다”고 자신의 결정에 후회하지 않음을 털어놨다.

이후 상경계 개그맨 박준형과 정종철로 대변되는 ‘갈갈이 패밀리’ 극단에 들어가 개그맨 꿈을 키웠다.

당시 이 극단에 소속됐던 개그맨 임혁필은 정형돈을 떠올리며 “형돈이가 양복을 입고 극단에 찾아와서 개그하고 싶다고 했다. 근데 나는 하지 말라고 했다”며 “그때



단독주택 서울 성북구 성북동

형돈의 연봉이 5000만 원이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다시 대기업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그럴 때려치고 개그하더니 1년 만에 스타덤에 등극했다”며 놀라워했다.

임혁필의 만류에도 자신의 길을 굳건히 걸어 2002년 제17회 KBS 신인 개그맨 선발대회에 입상하면서 KBS 공채 개그맨이 돼 ‘개그콘서트’에 전격 출연하며 인지도를 쌓았다.

이를 통해 인기 개그맨 반열에 올랐으며

우리나라 예능사에 한 획을 그은 MBC ‘무한도전’ 초창기 멤버로 2005년 발탁돼 인생의 전환기를 맞았다.

10년 이상 방영한 무한도전에서 특유의 존재감으로 활약을 펼쳤으며 출연진들과 절묘한 호흡을 자랑했다. ‘무한도전’이 MBC 간판 예능 프로그램으로 거듭난 덕분에 KBS ‘우리동네 예체능’, JTBC ‘낭랑 18세’ 등 인기 예능 프로그램에서 메인 출연자, MC를 맡는 등 범위를 넓혀 활약했다.

음악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 2009년 ‘무한도전’ 멤버로 합류한 가수 길과 ‘똥스’라는 듀오를 결성해 2010년과 2012년에 각각 앨범을 냈고, 데프콘과 ‘형돈이와 대준이’라는 듀오 그룹으로 음악 활동도 했다.

2009년에는 한유라 씨와 결혼해 슬하에 쌍둥이 딸을 두고 있다. 한유라 씨는 CF 모델, 연기자, 방송작가로 활동한 인물이다. 둘은 SBS 예능 프로그램 ‘미스터리 특

공대’에서 방송작가와 출연진으로 만나 인연을 맺었다. 이후 정형돈의 적극적인 구애 끝에 결혼에 골인했다.

꾸준한 방송 활약과 행복한 결혼 생활 뒤에 어려움도 있었다. 지상파-케이블-중편을 넘나들며 중형무진 활약하던 정형돈은 2015년 불안장애를 이유로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약 10개월 만인 이듬해 9월 MBC 예브리원 ‘주간아이돌’, JTBC ‘몽처야 찬다’, 웹예능 ‘돈플릭스’ 등 방송에 복귀했지만 병이 재발해 다시 방송에서 물러났다.

그는 JTBC ‘위대한 배대량’에 출연해 “2년 가까이 불안, 발작이 없었는데 잊그제 몇 년 만에 공황 장애가 왔다. 녹화 도중에 갑자기 와서 출연을 중단했다”고 고백해 안타까움을 자아낸 바 있다.

이후 회복에 전념해 복구에 성공했고 KBS2 ‘육담방의 문제아들’, 채널A ‘요즘 육아-금쪽같은 내 새끼’ 등 여러 방송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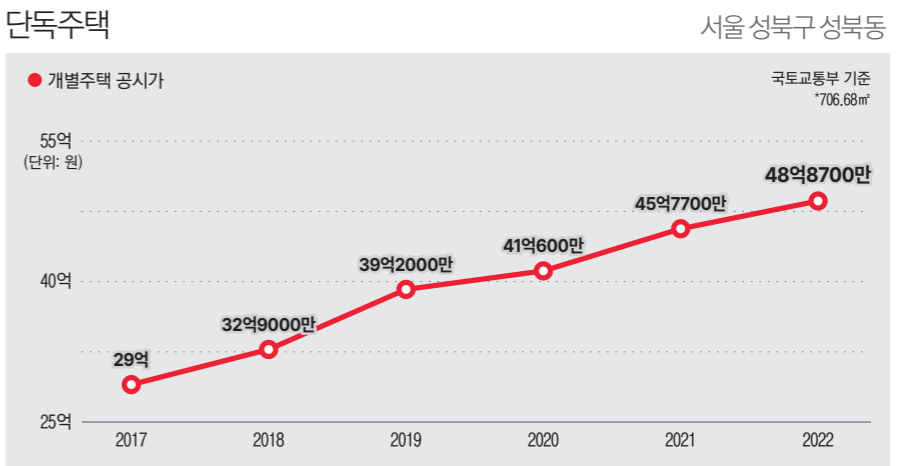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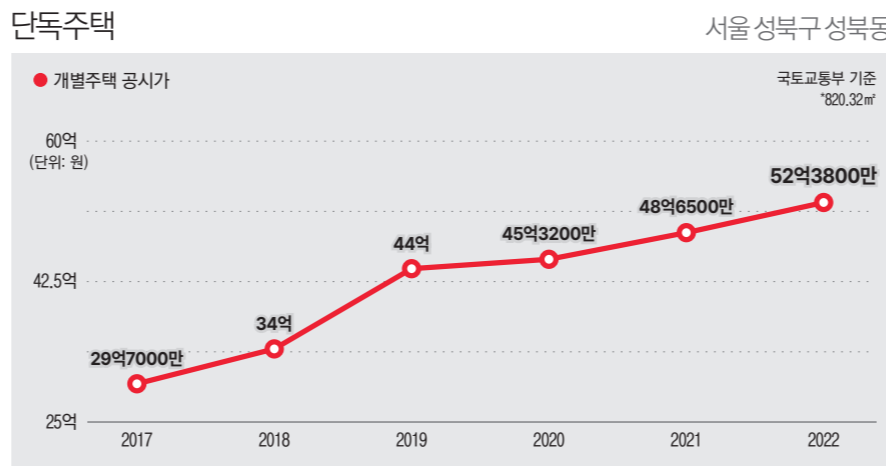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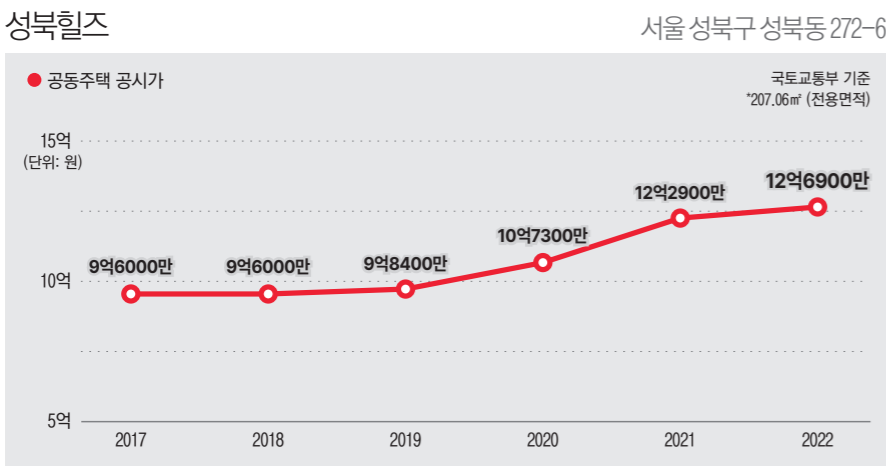


서 존재감을 보이고 있다.

19일 폐막한 2022 FIFA 카타르월드컵이 열린 현지로 떠나 현장의 생생함과 중계석 뒤 숨겨진 이야기를 전하는 MBC 예능프로그램 ‘안정환의 히든 카타르’에 출연해 대한민국을 위해 뜨거운 응원을 펼쳤다.

정형돈이 30일 방영되는 ‘요즘 육아-금쪽같은 내 새끼’에 돌아온다. ‘한달 전, 갑자기 딸더미를 시작한 6세 딸’을 주제로 한 방송에서 패널로서 시청자들과 함께 공감을 이끌어낼 예정이다. 내년 방송에서도 활약할 정형돈의 모습이 기대된다.

이동원 기자 dwlee@skyedaily.com



조정원

현세계태권도연맹 총재



다. 또한 경희대에 4년제 대학 중 세계 최초로 태권도 학과를 만든 인물로도 유명하다. 두 번의 올림픽 퇴출 위기를 극복해 2012 런던 올림픽, 2016 리우 올림픽에 태권도를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조정원 세계태권도연맹 총재는 경희학원 조영식 설립자의 장남이다. 서울고를 나와 경희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페어레이디킨스대에서 국제정치학 석사, 벨기에 루뱅대에서 국제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경희대 총장을 두 번 맡은 독특한 이력이 있으며 주한 온두라스대 사관 명예영사, 한국방문의해위원회 위원, 중국 인민대학교 객좌교수 등을 지냈다. 2004년부터 세계태권도연맹 총재를 맡은 조 총재는 태권도에 조예가 깊어 국제태권도아카데미 원장, 대한올림픽위원회 고문, 세계태권도평화봉사재단 이사장, 태권도박애재단 이사장 등을 지냈

오광현

현한국도미노피자 회장



오광현 한국도미노피자 회장은 승문고를 나와 성균관대 사회학과를 졸업했다. 국민은행에 입사해 은행원으로 4년간 일하다가 1990년 집 근처에 있는 도미노피자를 먹고 반해 그해 도미노피자 잠실체인점을 열고 피자 사업을 시작했다. 1993년 한국 도미노피자의 영업권을 전권을 넘겨받아 23개였던 매장을 2014년 393개로 확장했다. 대표이사를 맡은 후 한국은 도미노피자가 진출한 70여 개 나라 중 매출이 5위 안에 들 정도로 성장했다. 이에 도미노피자 본사는 2005년과 2013년 두 차례나 오 회장에게 최고 프랜차이즈 국가의 경영자에게 수여하는 ‘골드 프래니(Gold Franny)’상을 수여했



최은영

전한진해운 회장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여동생 신정숙씨와 최현열 CY그룹(남경그룹) 명예회장의 딸딸로 태어났다. 신준호 농심그룹 회장, 신선호 일본산사스 회장, 신준호 푸르밀 회장 등이 외삼촌이다. 일본 세이신여자대 영문학 과를 졸업하고 조중훈 한진그룹 창업주의 삼남인 고(故)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과 결혼했다. 전업주부였던 그는 조 전 회장이 2006년 폐업으로 세상을 떠나자 한진해운 경영권을 물려받아 2007년 3월 한진해운 주주총회에서 등기이사 및 부회장에 취임했다. 그해 12월 말 한진해운 회장에 취임했고 이후 2008년 12월 말 한진해운



대표이사에 올라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직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해운업 경기 악화 등으로 큰 성과를 내진 못했다. 2014년 시속 조양호 회장의 한진그룹에서 한진해운을 완전 분리했으며 우수그룹으로 재편해 회장직에 올랐다.

맛깔나는 우리동네 부동산

내포신도시 출범 10년... 행정중심 복합도시 꿈 시동

충청남도

충청남도는 내포신도시 내 수도권 대형 공공기관 유치로 행정중심 복합도시 조성으로 방향을 재설정하고 행정력을 집중 투입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2012년 12월28일 도청 이전 완료와 함께 내포신도시 시대를 열었고 10년 동안 127개 기관과 단체를 유치하며 충남혁신도시로 발돋움했다.

지난달 말 기준 부지 조성 완료 면적은 991만㎡로 공정을 99.6%를 기록 중이며 토지 분양률은 92%로 대상지 388만㎡ 중 356만㎡를 매각했다.

내포신도시 활성화 핵심 요소 중 하나인 기관과 단체는 유치 대상으로 잡은 107개 중 103개가 신도시나 인근 지역으로 이전했고 4개는 이전을 진행하고 있다.

유치 대상 외에는 24개 기관과 단체가 내포신도시 안팎에 새롭게 터를 잡았고 11개는 공사와 설계작업, 기본계획 수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내포신도시 전경.

충청남도

내포신도시 성장동력인 기업도 속속 자리를 잡고 있다.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40만2137㎡ 중 분양 면적은 가계약 포함 20만6012㎡로 나타났다.

내포신도시 첫 기업인 한양로보틱스를 비롯해 9개 기업이 가동을 시작했고 1개 기업이 내년 운영을 앞두고 준공했으며 8개 기업이 부지를 확보해 착공을 준비하고 있다.

가계약 기업은 7개로 면적은 5만2896㎡

다. 이들 25개 기업의 총 투자 금액은 1501억 원, 고용 인원은 636명이다.

공동주택은 16개 단지 3만6263가구가 공급됐다. 10개 단지 9331개 가구는 공사 중이며 6개 단지 5824가구가 추진될 예정이다.

내포신도시 인구는 3만872명으로 도청 이전 당시인 2012년 12월 509명에 비해 60배 이상 증가했다.

총 인구의 83%(2만5370명)는 입주 아파

트가 밀집한 홍성군에 거주하며 남녀 성비는 절반씩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유치원-초-중-고교는 11곳이 개교했으며 의료시설은 의원 20곳, 약국 7곳 등 27곳이 문을 열고 있다. 종합병원은 명지의료재단과 의료용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체육시설 중 충남도서관은 2018년 문을 열었고 충남미술관은 2025년 개관을 목표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 중이다. 도립 예술의 전당은 2028년 개관을 목표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다.

충남스포츠센터는 공사 공정을 30%로 건립 중이며 민간에서 개발 중인 골프장은 내년 6월 개장할 예정이다.

편익시설은 총 767개소로, △의원 등 건강시설 32개소 △문화시설 12개소 △생활시설 90개소 △체육시설 70개소 △교육시설 88개소 △휴게음식점 101개소 △일반음식점 374개소 등이다.

정도현 기자 dhjung@skyedaily.com

내년 부산항 개발 예산 2782억 원 확보

부산광역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는 항만 및 여항개발, 태풍피해복구, 항만개발 등 2023년도 예산 2782억 원을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부문별로는 △부산항 신항 1942억 원(2022년 대비 60.9%↑) △부산항 유지보수 및 재해복구 등 601억 원(2022년 대비 50.1%↓) △연안 정비 106억 원(2022년 대비 12.2%↑) △국가여항 개발 133억 원(2022년 대비 85.7%↑)이 확보됐다.

부산항 신항 예산을 살펴보면 신항의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항만배후단지 조성, 진입도로 건설 등 479억 원의 건설예산 확보로 사업을 적기 추진할 예정이며 진해 신항 어업피해 보상비 1027억 원 확보로 원활하게 사업시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지역 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신항 재해방지시설 설치, 제덕 외 3개 물양장 정비, 용원수로 정비 등 182억 원을 확보해 지역 경제 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전경.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성화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부산항은 전년 대비 37.8% 증액된 84억 원이 배정돼 해양 연구-과학-조사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한 영도 연구조사선 전용부두 확충과 선박수리 공간 확보를 위한 북항 파체제(항구 내에 설치돼 방파제의 역할을 하는 시설) 축조 공사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영도 감지2지구 연안정비 41억 원, 대변항 정비사업 45억 원 확보로 사업을 본격 착수함에 따라, 부산항 관내 주민과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도현 기자 dhjung@skyedaily.com